

2007. 10. 9(화) 14:00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 지속가능발전 부산포럼 -

푸른 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토론회

- 주최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 후원 : 부산광역시

- 목 차 -

□ 사회

- 김성국 / 부산대학교 교수

□ 발제문 및 발제자

- 부산시의 녹색비전과 정책방향 2
 - ▷ 안홍준 / 부산광역시 녹지공원과장
- 푸른도시 부산 만들기의 과제와 해결방안 20
 - ▷ 김승환 / 동아대학교 교수
- 푸른도시 만들기 전주 사례 38
 - ▷ 신진철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자

- 조재우 / 부산대학교 교수
- 이성근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오동하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강철기 / 경상대학교 교수

부산의 녹색비전과 정책방향

안홍준 / 부산광역시 녹지공원과장

I. 머리말

부산은 배산임해형 아름다운 도시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성장과 외형적인 도시건설 과정에서 녹지공간이 잠식되어 도시구조물로 뒤덮인 회색도시로 변모하였다. 또한, 부산은 산이 많아 녹지가 풍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정산, 백양산, 황령산, 장산 등 큰 산들을 제외하고는 생활권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개별공원이나 녹지가 점적인 요소로서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 할 수가 없다. 공원·녹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통합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그간의 상황으로 인하여 공원녹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이었다.

공원녹지가 갖는 다양성, 불특정성, 공공성의 측면으로 볼 때 공공기간만의 조성관리로는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녹화 정책은 관주도로 추진되고 시민들은 피동적 협조 또는 이용자 역할만 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공원녹지 사업은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아시안게임, 월드컵, APEC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많은 녹지·공원을 확충하였으며,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APEC나루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조성 하였으나 아직도 부산시의 시민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1.86㎡로서 FAO에서 권고하는 9㎡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 4.58㎡, 동경 5.14㎡, 뉴욕 14.12㎡ 등 주요 대도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생활권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미 하얏리아 부대 터 시민공원조성 등 다양한 공원 녹지 확충사업을 전개하여 시민 1인당 생활권 녹지·공원면적을 늘려가고 있다.

II. 부산시의 녹지 및 공원 · 녹지현황

□ 가로수 - 35종 116,419본 (350개 노선 783.95km)

(단위 : 본)

구 분	계	상 록 수					
		소 계	후박나무	해 송	구실잣밤나무	먼 나무	기 타
수 량	116,419	14,146	7,905	3,414	1,321	834	672
비 율(%)	100	12.2	6.8	2.9	1.2	0.7	0.6

낙엽수								
소계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느티	회화	중국단풍	팽나무	기타
102,273	34,607	36,302	1,056	10,849	2,946	2,242	1,349	12,922
87.8	29.8	31.2	0.9	9.3	2.5	1.9	1.2	11.0

□ 화단·녹지대 - 75종 2,345천본 (792개소 1,945천㎡)

(단위 : 천본)

구 분	계	교 목							
		소계	해송	느티	동백	벚나무	대나무	소나무	기타
본 수	2,345	1,062	10.0	35.2	7.9	4.0	5.3	3.2	41.0
비 율(%)	100	4.5	0.4	1.5	0.3	0.2	0.2	0.1	1.8

관 목							
소계	철쭉류	개나리	사철	회양목	광나무	무궁화	기타
2,238.7	1,364.6	152.7	66.8	77.6	31.2	11.3	534.5
95.5	58.2	6.6	2.8	3.3	1.3	0.5	22.8

□ 가로변 수벽 - 19종 780천본 (112개소 80.53km)

(단위 : 천본)

구 분	계	사철	영산홍	개나리	피라칸사스	기타
본 수(천주)	780	223.3	105.0	6.8	64.3	380.6
비 율 (%)	100	28.6	13.5	0.8	8.2	48.9

□ 쌈지공원 - 162개소 214천㎡ (수목 375천본, 편의시설 2,104점)

구 분	계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 구
개소수	162	13	9	20	13	35	9	3
면적(㎡)	213,536	10,799	22,272	26,221	13,323	25,243	3,853	1,500
수목(본)	375,367	12,099	59,237	18,106	20,472	26,920	18,417	2,402
시설(점)	2,104	74	170	240	172	589	71	19

북 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8	8	6	2	2	5	9	8	12
9,164	48,785	4,329	1,396	1,837	3,253	21,191	6,130	14,230
25,957	70,560	9,374	7,659	5,303	12,514	51,100	6,638	28,609
42	106	126	10	29	257	41	52	106

□ 양묘시설 현황

(단위 : m²)

구 분		위 치	면 적	용 도	비 고
계		5개소	579,585		
대연양묘장	나무	대연4동	53,492	공원부지	· 느티나무 등 444종 33천본
삼락양묘장	잔디 초화	삼락동	221,614	하천부지	· 순 잔디면적 115,121m ² · 장포 등 12종 120천본
고촌양묘장	꽃	기장 철마면	64,278	시유지	· 팬지 등 12종 860천본
선동양묘장	꽃	금정구 선동	24,462	시유지	팬지 등 10종 500천본
감전양묘장	꽃	사상 감전동	77,990	하천부지	· 원추리 등 62종 441,630본
석대양묘장	수목	해운대 석대	137,749	시유지	· 느티나무 등 10종 12,000본
유리 온실		연신9동	216	사업소	· 관음죽 등 55종 350본

□ 산림면적 (2006년말 현재)

(단위 ha)

계	국 유 립			민 유 립		
	계	산림청	타부처	계	공유림	사유림
36,331	5,475	3,260	2,215	30,856	2,294	28,562

□ 산림육장

()는 개소수

구 분	계	백양산	윤 산	장 산	계명산
면적(ha)	(4) 195	(1) 10	(1) 86	(1) 43	(1) 56

□ 임 도

(2006년말 현재)

구 분	계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 구
연장(km)	89.31	-	2.4	-	1.9	14.2	0.72	9.56
북 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5.7	5.02	6.09	6.76	1.6	-	11.95	23.41

□ 公園·遊園地 현황

(' 06. 12.31 현재 / 단위: 천㎡)

구 분		계 획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총 계		585	77,849 (100%)	307	20,774 (26.7%)	27	34,293 (44.0%)	252	22,781 (29.3%)
도 시 공 원	소 계	570	55,013	304	18,262	23	21,926	243	14,824
	도시자연 공	11	24,843	1	534	4	15,736	6	8,573
	근린공원	106	25,415	46	15,870	16	3,704	44	5,841
	체육공원	4	2,227	2	19	1	2,201	1	7
	묘지공원	6	1,615	5	1,358	1	257	-	-
	어 린 이 공	392	862	250	481	1	28	141	352
	소 공 원	51	51	-	-	-	-	51	51
유 원 지		15	22,836	3	2,512	4	12,367	9	7,957

○ 시민1인당 공원면적 (인구 : 3,618천명)

▷ 계 획 : 15.20㎡ (공원법상 6㎡이상) ▷ 조 성 : 5.07㎡ (조성중 포함 1인당 11.10㎡)

○ 조성중 (27개소)

▷ 자연공원(4) : 이기대, 청사포, 불광산, 달음산

▷ 근린공원(16) : 진정산, 시민공원, 동래사적, 명장, 동래 ~ 해운대, 대연, 대연2, 당곡, 용호, 구포, 덕천, 공립수목원, 통일아시아드, 호암, 동부, 방곡.

▷ 체육공원(1) : 화전체육공원

▷ 묘지공원(1) : 추모공원

▷ 어린이공원(1) : 반여3동 어린이공원

▷ 유 원 지(4) : 황령산, 산성, 가야, 동백

○ 미조성 (252개소) : 연지공원, 거북섬유원지, 천지어린이공원 등

□ 綠地(緩衝·景觀)

구 분	계 획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시 설 녹 지	303	6,944	178	4,580	-	-	125	2,364

Ⅲ. 녹지 · 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1)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비 경기장주변 공원조성 및 교차로녹화

부산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 사직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공원, 금정체육공원 등 운동장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 시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서면교차로, 범내골교차로, 수영교차로, 진양교차로, 미남교차로 등 교차로 녹화를 하였다.

2) 2006년 APEC 기념공원 조성

APEC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 100,054㎡, 남구 UN평화공원 62,803㎡, 해운대 동백공원 149,678㎡을 조성하였다.



3) 조성중인 공원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원조성 사업은 진구 미 하얏리아 부대 터 시민공원조성, 사하구 다대동 통일아시아드공원, 9,982㎡, 수영구 광안동 호암근린공원 5,084㎡, 북구 화명동 공립수목원 조성 110,653㎡, 강서구 둔치도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공원 조성지(하얏리아부대)

4) 하천변 공원화 사업

부산시는 시내 주요하천 공원화사업을 추진 하천 살리기와 병행 시민 휴식공간과 및 생활권 녹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을숙도 철새도래지 주변 1,907,500㎡, 낙동강 염막지구 2,260,000㎡, 낙동강 삼락지구 4,722,000㎡, 온천천 고수부지 57,000㎡, 수영천고수부지 136,528㎡, 대천천 고수부지 15,630㎡를 공원화 하였으며, 이는 총 9,098,658㎡로 시민1인당 약 3㎡의 녹지가 조성된 것이다.



IV.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녹색비전

1) 부산시의 정책 방향

가. 도시 녹지벨트 조성

부산시는 도시 녹지벨트 조성을 위하여,

첫 째, 가로변 유휴공한지와 도시 구조물을 녹화하여 녹음이 풍부한 가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둘 째, 가로별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 녹지대와 친수공간을 꾸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셋 째, 낙동강변, 온천천변, 수영강변, 대천천변, 동천변의 수목식재 가능지역에 키 큰나무와 야생동물을 유인 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녹지 벨트를 조성.

넷 째, 철로변 녹지와 연결된 녹지 축 조성

다섯째, 도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를 녹도와 가로수 특화거리 등 생태통로로 연결하여 훼손된 생태계복구

나. 도시를 비우는 정책으로 정책전환

부산시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밀집지역중 일부지역을 선정 시범녹지 조성과 이전적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 도시를 건축물로 채우는 정책에서 비워 녹지 또는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를 비우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택 재개발 등 아파트 건립시 판상형에서 탑형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을 지하화 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녹지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입체적 녹색도시 건설

입체적 녹색도시건설과 조기 녹화를 위하여 수목식재시 대경목을 식재 조기녹화하고 건물 옥상녹화 확대와 옹벽 등 구조물 녹화, 건물 실내조경 확대로 입체적 도시 녹화로 타 광역시와 차별화된 명품 녹색도시 조성

라. 시민참여 확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개발논리를 우선하는 토지 이용정책을 오랫동안 운용한 결과, 부산의 공원 녹지는 그동안 많이 줄어 들어든 가운데 지금은 신규 녹지·공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의 패러다임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녹색환경의 확보로서 공원 녹지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환경 친화적 도시를 위한 녹지확보와 관리는 궁극적으로 도시를 녹색 공동체로 조성해 가는 것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그 접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민의 자발적인참여와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름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 녹지의 확충이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시민 그린트러스터 운동 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 부산시 녹색비전

부산시의 녹색비전은 2020년 까지 녹지율을 5.85%에서 11.6%로 올리는 것이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할 계획이다.

가. 2020만본 부산 나무심기 추진

2020년 대비 명품 녹색도시 건설과 녹색비전 달성을 위한 부산나무심기 추진이다. 2020년 까지 2020만본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예산사업으로 1,177만본, 유관기관 73만본, 민간부문에서 770만본을 식재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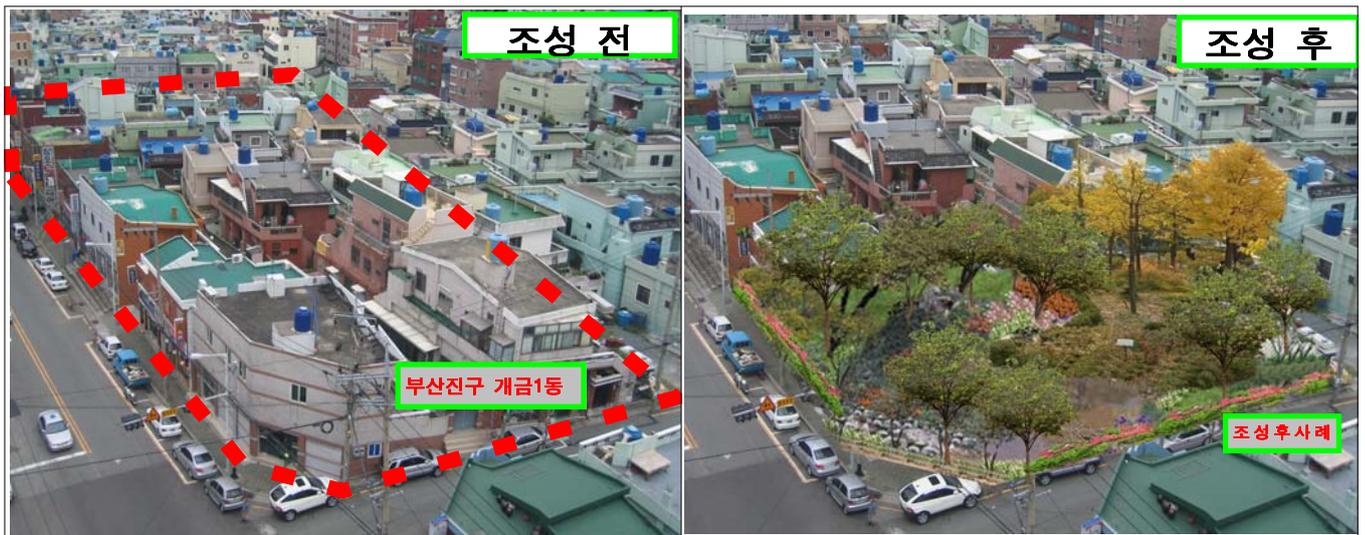
나. 이전적지 공원화 사업

부산시는 현재 미 하얏리아부대 터 543,360㎡에 시민공원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인쇄창 부지 호암근린공원은 조성 중에 있으며, 양정 15헌병대 이전시 공원을 조성 할 계획이다

다. 시범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명품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면로변 주택지 3,000 ~ 5,000㎡를 매입 시범녹지를 구(군)별 1개소를 조성하여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녹지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시범녹지 조성시 지하 주차장 설치 가능지는 주차장 설치와 연계하여 주거지 주차난해소와 동시에 해결 할 것이다.

또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30개소 14,430천㎡의 공원을 2015년 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년차별 조성계획을 수립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시범녹지 조성>

라. 주요하천변 녹화

시의 주요하천인 낙동강, 온천천, 수영강, 대천천, 동천 등 하천을 복원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부산시는 을숙도 철새 도래지, 낙동강 삼락지구, 낙동강 염막지구, 온천천 고수부지 수영강고수부지 등 약 1천만㎡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낙동강 화명지구 등 지속적인 하천 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수목 식재 가능지는 키 큰나무 또는 야생조수 유도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통로화 및 녹지축의 네트워크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 가로수 특화거리 및 걷고 싶은 거리조성

지역내 가로수는 350개노선 116천본이 식재되어 관리 되고 있으나 생육환경이 열악하

고 관리가 부실한 현실을 감안 주요노선별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5년내 현재의 두배이상 키울 수 있도록 하여 가로수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또한, 차량위주의 도로를 주변에 푸르름이 있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특색 있게 조성 견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 고가로 하부 및 녹지 확대조성

부산의 고가도로 하부녹화 대상지는 10개소 6.3km, 54,390㎡에 달하고 있으나 일조량이 부족하고 빗물이 스며 들지 않는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녹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 조건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녹지로 조성 삭막한 도심 녹지환경을 개선 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생활권 주변 자투리 사유지와 지정보호수 118본 주변 사유지를 매입 생활권 주변의 마을 마당으로 조성하거나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대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조성전



조성후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

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총 400개소이며,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조성 된지가 오래 되어 시설이 낙후 되어 있고 대부분이 주택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 한다면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그의 없는 현실이므로 어른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 해 나갈 것이다.

바.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학교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한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담장개방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녹지 및 공원기능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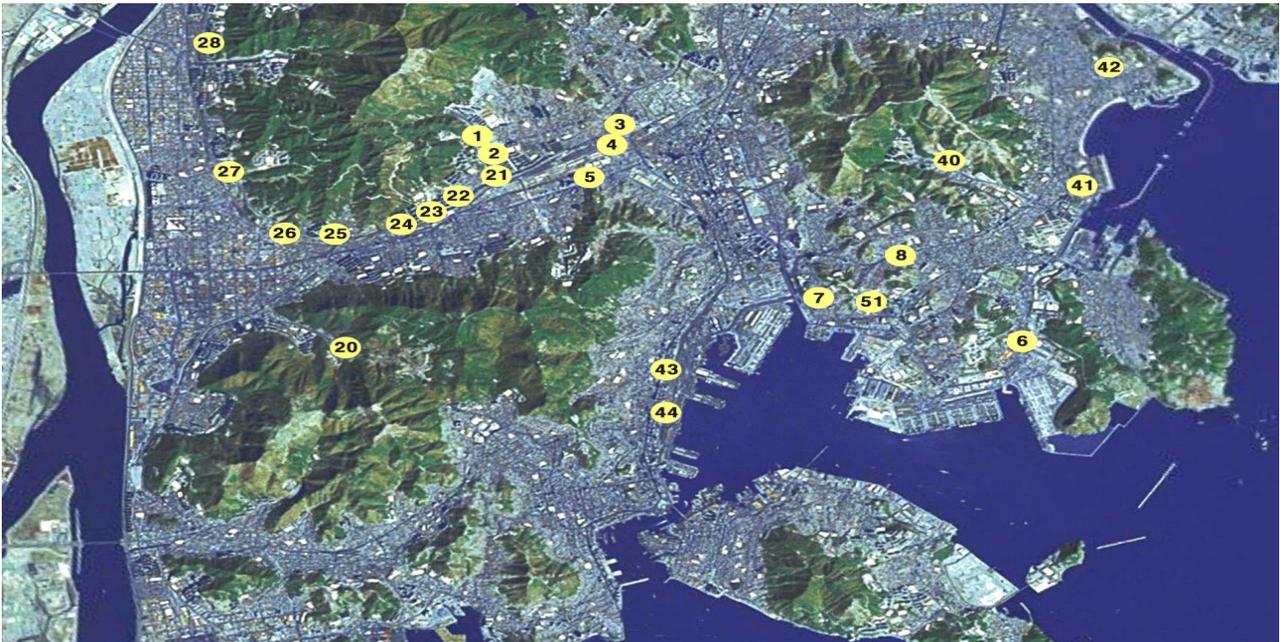
새로운 부지를 확보 녹지 및 공원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내 학교 612개교를 담장허물기 및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많은 녹지 및 공원을 제공하게 된다.



아. 옹벽 등 벽면 녹화

부산은 배산 임해형 도시로 도로개설, 아파트 건설 등 대형 공사에 따른 옹벽 등 구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처리되어 도시를 더욱 삭막한 회색도시로 만들고 있다. 이를 녹색도시로 바꾸기 위하여 벽면 녹화가 시급 한 실정이다.

부산시 주요도로변 옹벽은 가야로변 옹벽, 북병산 옹벽, 대티터널 입구 문현고개 등 약 52개소가 있으며, 옹벽 대부분이 도로와 접하고 있거나 옹벽 앞 인도가 좁아 화단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담쟁이 녹화를 추진 푸른 가로 환경으로 조성 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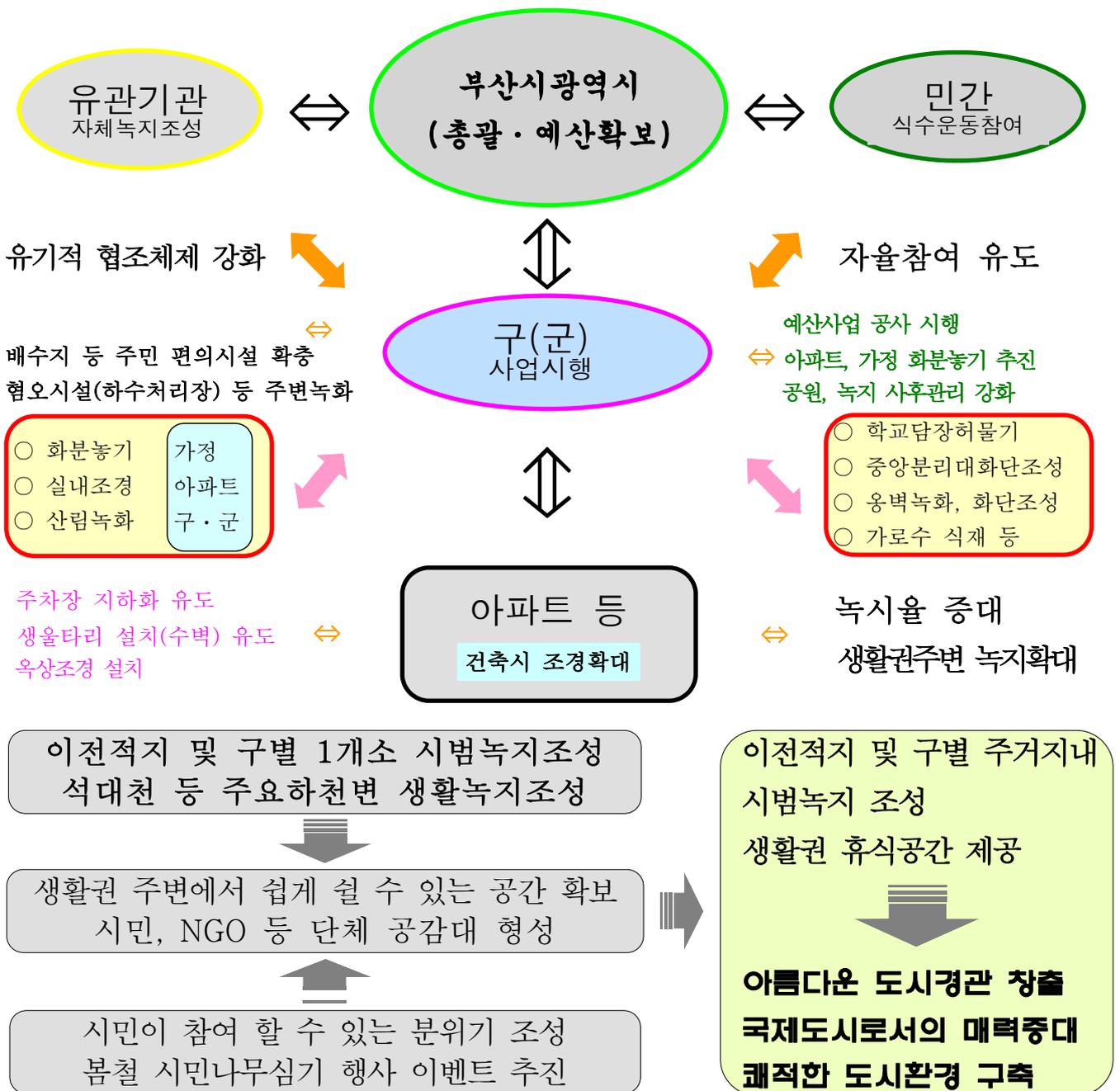


자. 도시생태림 조성

부산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36,331ha이며 대부분 도심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중, 임상이 빈약한 곳, 산불피해지, 무단경작지, 무입목지 등에 생태적 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고 도시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369ha에 도시 생태림을 조성 할 계획이다.

V. 세부 실천계획

1) 부산 나무심기 흐름도



2) 예산사업 추진전략

□ 2020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

- 산림녹화 및 공립수목원, 도시숲 조성 등 국비 최대 확보
 - ▷ 산림청,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협의 강화
- 시비확보를 위한 예산 우선순위 상향조정
 - ▷ 투자우선 순위 상향조정 타 사업에 우선 시행
- 구별 시범녹지 1개소 조성(3,000㎡ ~ 5,000㎡)
 - ▷ 이면로변 주택지 선정 보상 후 주차장 병행 녹지조성
- 가로수 등 가로변 녹화
 - ▷ 주요도로 변 녹화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녹시율 증대
-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
 - ▷ 학교담장허물기 확대 및 민간건축물 담장 생울타리조성 유도
- 도시녹화의 입체화
 - ▷ 옥상, 실내, 옹벽 등 입체 녹화 추진

□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전담조직 보강 및 확대
 - ▷ 녹지, 공원, 산림 분야별 전담조직 개편
 - ▷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확대(녹지사업소), 공원 녹지 등 관리

3) 유관 및 산하기관 사업 추진전략

□ 유관기관 사업 추진

- 부산나무심기 동참유도
 - ▷ 유관기관별 청사주변 조경 보완 및 담장허물기 등
 - ⇒ 담장허물기 신청시 예산사업으로 추진
 - ⇒ 담장허물기 가능 기관선정 시범추진

□ 산하기관 사업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 ▷ 주택지주변 배수지 개방(복병산, 전포1. 2. 가야배수지 등)
 - ▷ 정수장 주변 녹지조성 확대
 - ⇒ 오류, 명장, 덕산, 화명정수장 주변 녹화
- 환경시설공단
 - ▷ 하수처리장 주변녹화(안락, 용호 등)
 - ⇒ 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에게 개방 유도

- 부산교통공단
 - ▷ 지하철 역사(지상구간) 주변 녹화 ⇒ 식재가능지 수목식재유도
- 소방본부
 - ▷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주변 녹화 ⇒ 편의시설 등 확충

4) 민간 사업 추진전략

□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 조경면적 확대 유도
 - ▷ 조경협의시 주차장은 지하화 유도 ⇒ 지상 녹화
 - ▷ 건축물옥상 조경 확대
 - ▷ 콘크리트 옹벽 자연석 쌓기 유도 ⇒ 구조물 조경유도
- 신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택지조성 등
 - ▷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단지조성 사업시 공원 및 녹지조성 확대 유도 및 질적 고급화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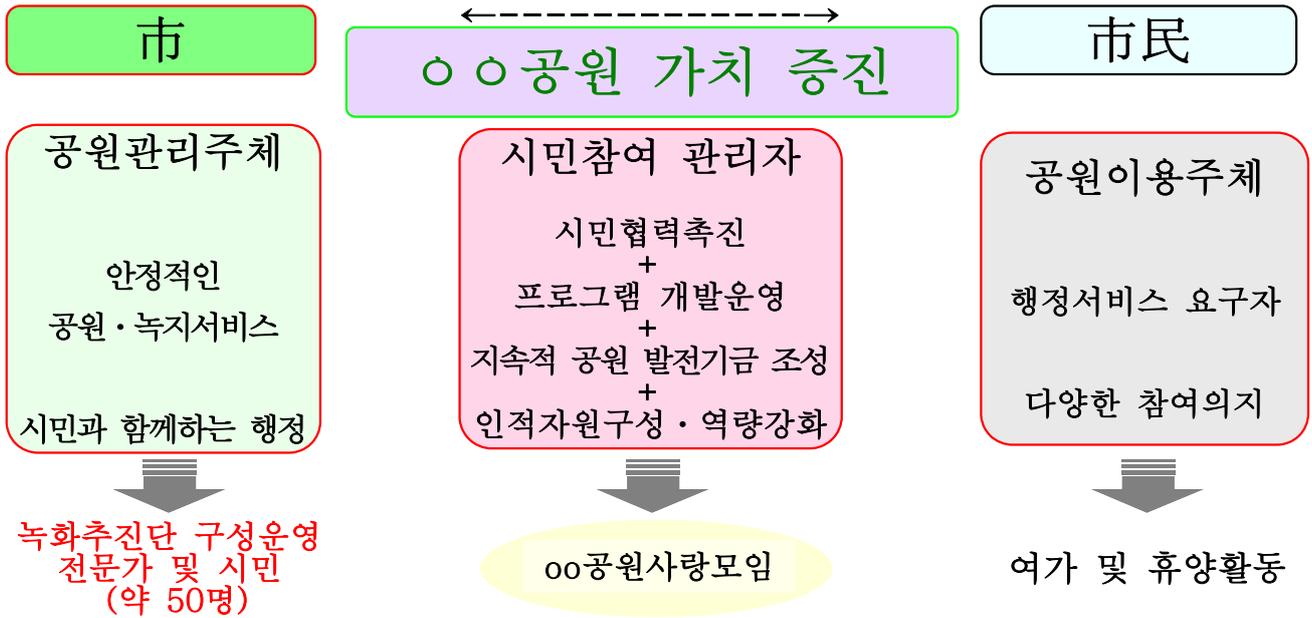
□ 시민 나무심기 참여 유도

- 아파트 및 주택 화분농기 추진 ⇒ 구·군별 평가 시상
- 신규아파트별 평가 조경인정아파트 추진 ⇒ 경쟁유도
- 기존건축물 및 아파트 조경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강화
 - ▷ 건축물 준공 후 조경시설 타용도 전용 등 방지
- 봄철 시민나무심기 이벤트화 나무심기 분위기 조성
 - ▷ 녹산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낙동강 둔치 등 대대적 행사 시행
- 나무나누어주기 확대 ⇒ 시민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 제공

5) 공원·녹지 관리전략

□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공원·녹지의 패르다임 전환
 - ▷ 시민은 공원·녹지의 공급 대상이 아닌 공원·녹지의 조성 및 운영 동반자
 - ▷ 양적인 공급과 함께 질적 향상 도모
- 공원의 브랜드화/ 공원마케팅/ 공원의 비즈니스
 - ▷ 공원을 통한 지역의 재생 및 경제파급효과 거양
 - ▷ 생태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 중요 거점공원 조성
- 공원·녹지 관리의 시민참여



VI. 맺음말

개략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부산시의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충 사업의 추진과제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공원녹지는 문화생활의 터전으로서 또한, 서부산권, 동부산권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리고 주 5일제근무의 정착과 고령화 사회 등의 사회현상과 연계한 여가 패턴의 변화 등에 부응 한 공원녹지 정책의 대응이 요구되고, 민간의 녹지가 도시의 주요 녹지거점으로 그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생태보전, 환경오염을 저감 시키는 생태적 접근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의 공원녹지 정책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한 사업과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므로 단기적인 접근 보다는 장기계획을 구상하여 시 차원의 통일된 추진기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와 구의 공원녹지 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을 발전시키고 행정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관리 업무를 분담한다.

다음은 공원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의 공원은 이용자를 기다리는 곳이였으나 미래의 공원에서는 이용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여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마케팅적 수법이 강구 되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공원을 지역문화의 거점화 내지는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인 프로그램 구축, 푸르름과 신선함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급처로서의 이미지 마련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공원녹지의 확충은 부산시 조직의 절대적인 행정력이 요구 되지만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 효과는 커질 것이고, 특히 공원녹지 관리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를 위한 하부조직으로서의 시민 참여는 도시 녹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산시의 공원녹지 확충 및 보전은 시 차원의 녹지 확충 사업과 함께 시민과 기업, 시민단체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다음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녹지를 보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푸른도시 부산 만들기의 과제와 해결방안

김승환 / 동아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각종 지구환경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 등 방안 찾기가 국가, 도시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지도자회의인 다보스(DAVOS)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각국 정상회의 주제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주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의 공원녹지로서, 푸른 도시만들기는 도시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공원과 녹지를 체험할 수 있는 넉넉한 도시, 새들이나 잠자리 등의 생물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경향은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생태주의적 삶과 일치한다. 이제부터 도시의 목표는 생태도시, 푸른 도시이다.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지역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도시방재, 도시개발의 조절, 도시환경의 조절, 에너지절감, 어메니티의 창출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도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인정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의 공원녹지가 도시민의 수명연장 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선진도시들은 기존의 넉넉한 도시녹지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도심 내에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도시의 움직임 속에서 동북아 중심 해양도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이상하리만큼 공원녹지분야에 무관심하다. 정책적인 대안이나 전략제시에 등한시하였고, 도심 내에 공원녹지를 조성,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관련분야의 예산확보에는 매우 인색하여 부산의 공원녹지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삭막한 도시환경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부산시에 있어서 도시의 공원녹지의 문제는 지구환경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공간의 사치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삼포지향이라 자랑하고 있는 넉넉한 부산의 산(山)과 바다 때문일까.

삼포지향의 도시, 바다 산 강이 아름다웠던 도시 부산의 자연은 나날이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은 보다 편리해지기 위하여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어왔던 주변산림을 훼손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복개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미래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생태계를 마구 망가뜨려왔다. 그 잠재력이 높았던 자연 자원들을 영망진창으로 파괴하여 왔으면서도, 서투르고 미숙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만 무성할 뿐, 그 내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무수히 푸른 부산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대안도 제시되었다. 행정도 나름대로는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정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부산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맞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까지 3년까지 182개 녹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중 45개소의 담장허물기 사업이 추진되었고, 28개소의 짚지공원이 조성되어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었다. 특히 아시안게임 상징가로가 전면적으로 녹화 정비되었고, 서면·문현 교차로 등 20여개 교차로의 녹화사업은 중점적으로 실시되어 국지적으로는 가로변 녹시율(綠視率)도 많이 향상되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 내용(2004, 문화도시네트워크)을 보면,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는 높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도시가 많이 푸르러졌다고 평가하는 시민들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가 푸르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대구, 울산, 인천, 대전 등의 도시녹화사업에 비하면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는 2003년도 푸른부산 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부산 녹화마스터플랜」(주:2020부산녹화마스터플랜은 2003년 말에 완성되어, 장기적인 목표 설정,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을 작성하였지만, 시의 도시녹화 정책은 이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커다란 틀의 변화 없이, 구체적인 방향의 설정도 없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단발적이었고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푸른 도시 만들기를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도시모습은 콘크리트로 가득한 삭막하고 여유 없는 회색도시화한 것이다. 푸른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부산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월드컵공원, 청계천복원, 서울숲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울산시는 태화강의 생태복원, 울산대공원으로 도시의 모습을 바꾸었고, 대구는 담장허물기, 중점적인 도시녹화 등으로 푸른 대구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지만 부산에는 공원녹지에 관한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부산을 진정한 푸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것이다.

II. 푸른 도시 만들기의 과제

1. 비전이 없다

부산의 푸른도시 정책을 보면 푸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을 위해 미래의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대안도 정책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도시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남겨줄 넉넉하고 여유있는 공원이 있는 우리의 미래도시를 제대로 그려보지도 않았다.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는 미래의 녹색지표가 설정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제대로 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쾌적한 도시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부산의 1인당 공원면적은 도시계획면적만으로 보면 20㎡에 달하지만, 시가화구역 내 이용 가능한 생활권 공원면적으로 보면 1㎡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계획법에서 권장하는 1인당 공원면적 6㎡,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면적은 9㎡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비전의 제시와 함께, 도시의 녹지확보량, 1인당 공원면적 등 목표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의 공원녹지는 도시공간의 사치품이 아니라, 도시민의 쾌적한 삶,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생명의 공간이다.

부산의 경쟁도시 중의 하나인 중국의 항만도시 상하이시(上海市)는 중국의 대도시 중에서 공원녹지면적이 최하위였지만, 도시의 정책목표 중에서 녹색도시 만들기를 최고 우선순위로 하여, 매년 800ha의 공원녹지를 신규로 확보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최근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1인당 2㎡에서 9㎡(2004년 말)로 늘렸다고 한다. 최근의 상하이시는 도심 한복판에 녹색거점과 녹색벨트가 조성되었으며, 시민들도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등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사고가 바뀌었고,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이 달라졌다.

2. 구체적인 의지, 전략이 없다

부산시는 공원녹지정책에 있어서 공원녹지의 확보, 녹지의 보전, 비오톱공간 확보, 생태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기응변식의 소극적인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전략을 마련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의 문제는 생태도시만들기 차원에서, 수변환경문제와 녹지문제가 녹지네트워크, 바람길네트워크, 보행자네트워크, 블루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시시설로서의 공원녹지로 밖에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천 즉 물과 녹음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전혀 별도의 시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녹색, 생태환경 분야는 앞으로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업역으로 전망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이 분야의 육성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은 이를 새로운 사업 분야로 생각하고 있지도 못하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대책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열악한 녹지산업 여건으로 인해 부산의 관련 기업은 부산을 떠나고 있다.

도시의 녹지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도심부 산지의 훼손,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대표적 경관 및 녹지훼손, 소규모 습지 및 수로의 매립 등 난개발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으며, 지키고자하는 정책이나 전략도 부재하다. 도시의 생태계는 분절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산의 공원녹지 분야는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이 깜깜하다. 단지 위정 책임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군부대 이전적지는 어느 한 곳도 제대로 공원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도심 내에는 신규로 평지공원이 확보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다행히도 평지공원이 없던 부산에 금년 2005년 중에 APEC을 계기로 APEC나루공원(수영강변 수변공원), APEC평화공원, 동백섬공원 등의 도심공원이 새로 완성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이 되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부산에는 100만평을 넘는 도시계획공원이 많이 있다. 도시자연공원인 가덕공원(506ha), 불광산공원(740ha), 달음산공원(614ha)의 3개소와 근린공원인 중앙공원(502ha), 어린이대공원(506ha), 금강공원(309ha), 봉대산공원(331ha)의 4개소, 유원지인 황령산유원지(581ha), 산성유원지(654ha^m), 가덕유원지(311ha)의 4개소 등 10개소에 달한다. 이의 전체면적은 5,026ha로서 부산 전체공원면적 7,629ha^m의 65.9%에 달한다. 이 10개의 공원들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시림의 파괴라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개발성향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산(山)은 산(山)이지, 공원(公園)이 아니다. 이렇듯 산지에는 대공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으나 평지에 조성된 대규모의 공원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으로 평지대공원의 조성이 절실하다.

3. 예산확보에 소극적이다

공원녹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부산의 공원녹지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1998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일반회계대비 0.5%~1.0%를 확보하였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와 연계시켜 약 300~370억원(1.2~1.5%)을 확보하였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고, 2006년도에는 40억(일반회계 대비 0.1%)을 넘지 못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나왔다. 이 예산액은 서울시의 130분의 1, 울산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 연차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의원들은 이 적은 녹지예산을 예산부족을 구실로 삭감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삭감에 있어서 가장 만만한 항목이 공원녹지예산이다.

공원편입 부지매입 비용은 공원행정 개시 이래 20여년간 219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매년 10억원에 불과한 비용이 공원용 부지확보에 투입된 셈이다. 공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400만 명의 대도시가 미래의 도시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무대책, 무조직을 예산부족이라는 말 한마디로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다.

부산이 공원확보에 투자를 부리고 있는 사이, 타 도시들은 일반회계예산 대비 2~3%의 수준의 예산을 공원녹지조성에 투입하면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도시민을 위한 녹지환경개선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최근 5년간 공원녹지예산을 꾸준히 증액하여 일반회계 대비 3~4%는 유지하고 있다. 부산과 비슷한 규모인 일본 요코하마시의 녹정국 총세출은 4,465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4%를 점하고 있으며, 총예산의 약 80%가 공원녹지확보를 위한 용지보상비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4. 공원녹지 행정시스템이 열악하다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의 직제, 주민참여사업 등 행정시스템을 보면 체계성이 없고, 소극적이다. 조직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국 산하의 1개 녹지공원과에서 370만 대도시의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도시하천 등 수계(水系)는 녹지와는 별개로 환경국과 건설관련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푸른 도시, 생태도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앞으로 푸른 도시의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이를 지속적인 생태도시 개념으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 내에서 공원녹지 사정이 가장 열악했던 오사카시가 1960년대 푸른 오사카를 만들기 위하여 「녹화100년계획」을 구상하고, 전담부서인 녹화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사회적으로 푸른 도시만들기의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가 돋보인다. 오사카시는 이러한 체제를 토대로 하여 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녹색거점의 확보, 녹색정보의 구축에 성공하였다. 이는 녹색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5. 녹색 주민참여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

부산은 예전부터 시민활동이 왕성하고,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이 많은 지역이다. 하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관협의체인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2002년 아시안게임시 도시녹화를 위해 시민들이 식수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시민들의 참여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는 푸른도시 만들기의 주민활동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도시상징공원인 “100만평문화공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원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기금을 모아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부산시, 기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의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부산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온 전국적인 공원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 운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가 어려웠던 탓인지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푸른 도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울어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Ⅲ. 푸른도시 만들기 해결방안 찾기

1. 장기적 비전계획인 「100년 녹지비전계획」을 세우자

푸른 부산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구상하자. 100년정도의 앞을 내다본 장기적인 미래계획인 「100년 녹지비전계획」을 세우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의 모든 역량과 행정의 힘을 함께 모아 미래의 녹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 틀을 짜나가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장기적으로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5년 정도의 단위로 구체성 있는 「공원녹지 5개년 전략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도 최근 「서울그린비전2020」 실천전략연구를 위해서 “100년 앞을 내다본 도시오픈스페이스계획을 수립하기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눈을 끄는 또 하나의 계획이 있다. 2002년 시애틀의 도시디자인(City Design)에서는 도심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공개공지 체계에 대한 100년 비전계획인 「블루링(The Blue Ring : Connecting Places)플랜」과 10년 시행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그린웨이 확보방안의 하나로서 장기계획과 시행전략을 동시에 세워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도심에 「2,0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숲조성 운동을 전개하자.

식목일이면 우리는 산에 나무를 심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부산을 푸르게, 푸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심 내에, 시가지에 나무를 심어, 후손에 남길 수 있는 생명의 숲을 조성하자. 그리고 우리들이 직접 물을 주고 잘 가꾸자. 모든 시민들이 매년 나무 1그루씩 심는다면 6년 내에 2000만그루의 도심숲만

듣기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공원, 녹지 등 가능한 식수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가로녹화, 공원녹화, 시민의 숲 조성, 공공시설녹화 등 공공녹화에 의해 650만주의 나무를 심자. 나아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학교 등의 장소에 시민녹화에 의해 1,350만주의 나무를 심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진정한 푸른 부산을 만들어 가기위하여 전력을 투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범시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생색만 내려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민과 관이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구시는 도시녹화 사업을 대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도시만들기에 안착하였고, 인천시는 2002년부터 5년간 370억원을 투자하여 「푸른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특별시도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업에 4년동안 전력을 투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도 최근 5년간 시민 1인당 나무 1그루 심기사업을 완료하였다 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대전직할시의 「생명의 나무심기 추진계획」도 돋보인다.

광주광역시도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몇 년 째 추진 중에 있다.

3. 「공원녹지 민관협의체」를 설립하자

도시의 공원녹지문제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부산의행정은 예산부족만 이야기할 뿐, 시민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원녹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에 의해서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공원녹지협의체인 「푸른부산만들기를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칭)」, 부산녹지재단, 부산그린트러스트의 설립을 제안한다.

공원녹지 민관협의체란 시민과 행정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공원과 녹지를 확대해나가고,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가는 민관협치기구를 말한다. 나아가 부지의 매입, 혹은 이를 추진해 나가기위한 기금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민관협의체는 행정과 기업, 시민들이 참여하여 힘을 모아 부산 전역을 푸른 숲 도시 공원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을 일구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어 예상치 못한 곳곳에서 시민의 힘이 모아져 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행정도 도심의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공원녹지의 확보에 대해서는 선견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요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시민이나 단체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과 같이 협력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지켜나갈 수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업을 민관이 파트너십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원녹지민관협의체 혹은 그린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부산의 공원녹지를 본격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본격적인 녹색운동, 2000만그루 숲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2년 서울시는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창립하고, 민관협력에 의해 서울을 녹색도시로 만드는 데에 힘을 모아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2005년도에 완성된 서울숲의 조성 및 관리에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4. 예산, 조직체계를 강화하자.

1,2,3의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녹색정책에 전력을 투구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마음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액이상의 녹지관련 예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나아가 예산확보는 「공원녹지 5개년계획」 등에 의거,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만 한다.

나아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국 내의 녹지공원과 1과 체계수준을 2과체계, 나아가 도시계획구에서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나아가 푸른도시국의 수준으로 확대 개편, 행정조직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선3기를 통하여 서울시는 구OB맥주공장부지(1만8천여평)를 1000억여원에 매입하여 영등포공원을 조성하였고, 그 외에도 만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부내에 천호공원(구 파일롯트공장),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월드컵공원, 뚝섬서울숲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인천시는 도심내 공원조성을 위하여 5년간 3200억원을 투입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공원조성사업으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약 10.6만평의 부지에 1525억원을 투자하여(토지보상비;832억원, 시설비;693억원) 멋진 도시공원을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89만평의 인천대공원조성에 1267억원(보상비;713억원, 시설비;553억원)을 투입하였고, 부평동의 군부대 3.4만평을 매입(보상비;691억원, 시설비;139억원)하여 2001년도 부평공원을 완성하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2,500억원의 예산을 공원녹지조성사업에 투자했다. 2004년도에는 4,370억을, 2005년도는 5000여억원을 집행하였고(이 예산에는 청계천의 사업이나, 서울숲의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도는 55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공원녹지에 관한 관심과 집행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시도 생태도시 울산을 내세우고 공원녹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의 2006년도 공원녹지 예산을 보면, 400억원이상 책정하는 등 공원녹지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5.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만들자.

(1) 전 시민이 5분 이내에 공원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심공원체계를 재편하자

5분 이내에 공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유롭게 산책하는 정도의 속도라면 5분에 250m정도를 걸을 수 있으므로 반경 250m마다 생활권에서 한 개의 공원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부산의 공원수가 약 450여개인데 기존의 공원만으로는 절대량이 모자라며,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공원조성이 신규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규모는 어린이공원의 1500㎡보다 작은 소공원, 마을마당, 쌈지공원도 가능하며, 신규로 확보해야 할 도심생활권 공원의 면적은 적어도 약1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의 추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신도시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 시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과연 도심부 주택으로 가득 찬 지역에서 공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의 실행은 대단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시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방치되어있는 시가지내 자투리 유휴지를 발굴하여 소공원화해 나간다면 도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제도를 잘 활용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는 도시 소광장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시녹지를 확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담장허물기, 학교숲만들기, 정자나무공간의 소공원화, 주택지내의 담장허물기 및 유휴지활용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아가 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녹지공간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시가화구역내 공원녹지의 확보는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의 이전적지는 도심 내에서 평탄하고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구역내 신규 공원녹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잠재자원이다. 이전적지 중 군부대나 도시공원으로서의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시가지 내 폐교 부지나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국공유지는 반드시 공원녹지공간으로서 확보해야 할 주요자원 중의 하나로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실행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5분 이내에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활권 공원면적을 100만평 확보하자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오사카나 요코하마의 경우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민 전체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무한히 애쓰고 있다.

인천시는 ‘푸른마을 쉽터’ 확충계획에 의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218개소(178천㎡)의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가로 10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2) 해안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자.

그린웨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의 공간에서 자연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나아가 공원과 공원, 녹지를 연결하여주는 길이다. 일반적으로 녹음이 우거진 공원, 호수, 하천을 따라 난 산책로를 의미하며, 선진국들은 이 공원과 녹지를 연결해주는 녹도(綠道) 즉 그린웨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린웨이는 공원과 녹지와 집을 서로 연결시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시 생활을 여유롭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린웨이는 또한 생태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린웨이의 다양한 기능은 도시민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시민들은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즐기며, 편안하게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린웨이는 미래의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확보해줄 수 있는 지름길, 대안이 될 수 있다.

삼포지향의 아름다운 도시 부산은 지금, 바다와 산과 강과 공원이 모두 인공적인 구조물로 단절되어 있다. 많지도 않은 부산의 공원들은 마치 도시속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근교산이나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한 길들은 대부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녹색길, 그린웨이가 아닌 자동차도로 혹은 좁고 삭막한 인도에 불과하다. 하천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있어 몇 개의 도시하천을 제외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 도심내의 공원녹지 확보와 더불어 부산의 해안과 이 공간을 그린웨이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산의 해안, 산, 하천, 공원녹지공간을 전체로 보고 그린웨이로 연결함에 있어서, 단절된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연결을 위한 부지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강서지역의 농지지역에는 소하천과 함께 그물망처럼 농배수로가 산재해 있는데, 이곳은 그린웨이 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서, 향후 그린웨이로서는 물론 생물 서식공간인 비오톱 기능으로서 보전되어야 할 공간이다. 이 공간이 아무런 대책없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 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에서는 기존의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10여km에 달하는 녹도인 “푸른길”을 조성하였다. 이는 폐철도에 경전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했던 행정에 반대하여, 시민들이 일구어낸 시민들의 훌륭한 성과물이다. 이 공간은 시민들의 생활에 녹색문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오염된 도시의 공기를 도시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람의 통로인 바람길을 만드는 일이다. 그린웨이는 바람길로도 통한다. 슈투트가르트시는 구릉의

삼림으로부터 도심으로 유입되는 바람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도시의 토지와 건물 등의 형태를 통제하여 도시 내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바람의 길」 계획을 1970년대 후반에 수립하였다. 이곳에서 발생한 차가운 공기는 도심부에 체류하고 있는 더워진 공기에 비하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밤이 되면 도심으로 흐르게 되며, 이 바람의 평균풍속은 초당 1미터에 불과하지만 도심의 오염된 대기를 주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고 한다.

(3) 가로변 활용 가능한 공원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자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녹지 즉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아니더라도, 도시민이 이용가능한 녹지공간으로는 도로부지 내 중앙분리대 등 녹지공간, 간선도로변 공개공지, 학교, 공공기관의 부지나 민간인의 사유지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여야 한다. 도심 가로변에 이용가능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도로변 녹지 및 어메니티 확보

도로변에는 우선적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존의 가로는 재건축 부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부여에 의한 공개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가로소공원, 소광장 기능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개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시 충분한 보도 및 녹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가각부 녹지 확보

도심의 가각부에서는 우회전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회전시 시야확보목적으로 가각전제를 하며, 규모가 큰 교차로에서는 이곳에 교통섬이 설치되는데, 차량과 사람의 소통에 있어 혼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우회전 전용차로를 없애고, 이곳과 인접한 교통섬 공간을 활용하여 소광장을 확보한다면, 보행 및 가로경관의 측면에서 도심 속의 녹음이 풍부한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 결절점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간선도로변 공공녹지 조성 및 담장허물기

간선도로변에 공용의 청사 또는 금융기관, 학교 등 공공적 성격의 시설이 있을 때에는 외곽담장을 철거함으로써 건축물 외부공간을 도로부지와 일체화된 공공녹지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점차로 간선도로변 사유지의 담장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행정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건축물의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자

부산의 공원녹지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지만, 높은 부지가격으로 인해 도심지내에 녹지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여기서 새로운 도심 내 녹지의 확보 방안으로 옥상의 녹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옥상녹화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의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의 녹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녹지자원이라 할 수 있다. 옥상녹화란 건물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노출된 지하구조물의 상부와 같은 인공지반위에 흙을 적재하고 잔디나 초목을 식재하여 푸르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물의 서식처제공, 도시열섬현상 완화, 생태계복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붕녹화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사무실의 경우 16%, 공동주택에서는 31%에 이른다. 수목으로 뒤덮인 지붕은 여름철의 실내 기온을 2~3.6℃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옥상을 50%만 녹화한다하더라도 시가화구역의 6.1%에 달하는 도시녹지 1,048만㎡가 확보된다고 하는 연구도 발표된 적이 있다. 도시의 옥상녹화는 생태적 건강성 확보는 물론 높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는 새로운 녹색분야의 벤처기업의 육성과 함께 수천, 수만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4월에 문을 연 서울 유네스코 건물의 옥상에는 조그만 공간에 물이 있는 습지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나무와 풀들을 심어 말 그대로 작은 자연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약 190여 평의 작은 이 옥상의 생태공원에서는 200여종의 온갖 꽃피는 풀과 열매맺는 나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심 내에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나비들과 잠자리, 새들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물속에는 개구리와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 살게 되었다. 도심 속의 한복판 건축물의 옥상에 작은 자연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들이 개구리나 잠자리들과 친구를 하려고 자주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옥상녹화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시는 옥상녹화를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옥상녹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시범지역의 선정, 지원방안의 마련, 대시민홍보 등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야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서울시는 옥상의 녹화시 조성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물 신축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생태성을 강조하고 생태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옥상녹화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옥상녹화 10만 개소 조성의 제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옥상녹화와 함께 벽면녹화도 입체적인 녹지공간의 창출, 녹색일자리의 창출, 벤처기업의 육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5) 도심에 비오톱공간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자.

선진도시들은 도시지역에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에 자연을 도입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심에 자연을 도입하는 것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여기서 사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부산시는 웰빙도시는 웨치면서도 도심에 자연을 도입하고, 복원하는 생태도시 만들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부산시민이 자연과 도심과 하나가 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심에 자연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도심 내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비오톱공간을 조성해야한다. 비오톱(biotope)이란 곤충이나 새 등의 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소규모의 생태공간을 말한다. 이 비오톱의 개념은 독일정부가 지난 76년 자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공식화한 이래 국제적으로 확산돼 스위스,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이 자연환경복원의 키워드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옥상녹화, 인공습지, 생태통로 등도 모두 비오톱 조성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세대가 개발을 명목으로 훼손하고 사라지게 만들었던 자연들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모습의 자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다음으로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야 하고, 그리고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조성하면서 없어진 자연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산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도시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는 비오톱공간이 별로 남아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산의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도심 곳곳에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내에 잠자리 연못, 건물옥상 등의 공간에 소생태공원(비오톱)을 많이 조성하고, 단절된 곳은 생태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원·녹지와 도시의 자연을 하천, 녹도, 생태통로 등으로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온천천의 일부구간은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되고, 주변이 정비되고, 물도 맑아진 결과, 인근 주민들의 온천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의 온천천도 원래의 생태복원과과는 거리가 먼 운동공간조성, 야간조명 시설설치, 유체발조성, 초지정리 등 원래의 하천기능을 벗어난 공원조성으로 정비되어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온천천이야말로 사람만이 걷고 싶은 하천이 아니라, 생물과 같이 공존하며 걸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지사과학단지는 첨단적인 이미지와는 동떨어지게 그 맑고, 아름답던 지사천이 갈갈이 훼손되고, 콘크리트로 직강화되고 일부구간은 복개되는 등 훼손되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사업이 완료되어버렸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잘못된 발상이 낙동강 둔치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의 생태보고라고 할 수 있는 340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하천부지 둔치에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수 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단기간에 투자하여 X게임장, 스케이트장, 마라톤코스 등의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왜 지금 미래의 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할 자연을 생태공원조성이란 허울좋은 명목하

에 서둘러 개발하려는 것일까.

이는 서울의 한강둔치 정비사업이나 일본의 여러 도시가 기존 둔치개발의 잘못된 발상을 반성하고 이를 새로운 하천의 생태복원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천은 도시의 중요한 비오톱공간으로 산과 도시와 바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 자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6) 주변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하야리아부대를 공원화하자

서면 도심 중심부에 군부대로 남아있었던 하야리아부지 16만평의 면적이 모두 공원으로 된다면, 부전역세권을 비롯하여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교통문제가 개선되고, 도심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이 평지공원은 부산의 상징적인 멋진 공원으로서 전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 공원의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며 도시와 함께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공원, 공원의 개발이 도심의 재생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공원, 만남과 소통이 함께하는 열린공원 등 다양한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해서는 서면과 공원 사이에 다양한 보행로확보, 백양산과 성지꼭어린이대공원과 북향을 잇는 녹지축으로서의 기능, 동천 및 부전전의 복원계획과의 연계 등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현재 이의 기본설계는 미국의 조경가인 제임스코너에 의해 구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주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공원프리미엄을 챙겨보자는 주택업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하야리아부지의 조기공원화를 통해서 부산의 모든 공원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야리아부지의 공원화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부산의 열악한 공원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이 공원화됨으로서 생활권 도심공원은 기존의 1.07㎡에서 약 0.125㎡늘어나 1.2㎡를 넘지 못한다. 도심 내에 필요한 공원면적은 1인당 6.0㎡라고 한다면 이는 부산의 공원문제 해결의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타 군부대의 이전적지의 공원화 문제도 상존하게 된다. 하야리아부대의 공원화만 외치고 있는 동안에, 타 군부대의 이전적지 혹은 공장이전부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타용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평문화공원을 조성하자.

부산에는 시민들의 영혼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넓고 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원, 이 공원을 통해서 부산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공원, 뉴욕시민이 자랑하는 센트럴파크보다 더 좋은 공간을, 비록 우리 당대에는 못 가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남겨주자고 시작한 운동이 바로 이 100만평문화공원운동이다.

100만평공원은 도심 내에 도시를 상징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맘껏 자유를 느낄 수 있

는 평지공원으로 넓은 평지숲이 있고, 넓은 초원이 있고, 문화공간이 있고,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가족이 같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공원을 말한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멋진 공연도 볼 수 있고, 세계종교인 모임 등 세계적인 집회, 농업박람회나 공원박람회, 꽃박람회 등 친환경적인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옥외 대공간이다.

100만평문화공원은 만들어진 공간도 중요하지만, 100만평문화공원조성에 시민이 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의 힘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푸른 도시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점 또한 중요하다. 100만평공원운동은 행정에 대한 반대나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전문성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자발적인 실천을 중시한다.

시민들은 사단법인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원1평 기금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고, 시민 250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의 기금을 모아 부지 13,400여평의 공원부지를 매입하였다. 이 기금모금운동은 일종의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형 운동이지만,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조성이라기보다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향후 공원용도로 필요한 지역을 미리 확보하여 공원환경을 창조하며 나아가 자연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2005년 11월 매입한 부지중 약8,000여평(20억 상당)의 공원부지를 부산시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시가 7,000평을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민관공원조성협약식이 거행되었다. 2007년에는 최초로 「자연환경국민신탁」에 2700여평의 공원조성용 토지를 신탁하여, 환경부에 의거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보전자산으로 등록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100만평 중 일단 1.5만평을 공원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4월 도시계획 공원지정 후, 2007년도에는 일정 예산을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공원조성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의 공원1평기금이 모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점차 부산시도 푸른도시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100만평공원조성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며, 민과 관이 같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간다면 시민이 갈망하는 부산의 명물, 100만평공원의 완성과 함께 꿈이 있는 공원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푸른도시 만들기를 통해 쾌적하고, 여유롭고, 자연과 공존하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들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여태까지와 같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사고와 전략으로서는 진정한 푸른도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푸른도시 만들기를 위한 비전제시와 함께, 근본적인 방향설정과 실천계획을 제시하여야한다. 푸른 부산 만들기는 적어도 100년은 내다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상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범시민적인 참여방안, 시스템갖추기, 사회적인 합의도출 등이 필요하다. 이의 대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 도시 공원녹지체계의 장기계획인 「공원녹지 100년계획」을 세우자.

푸른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시 공원녹지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장기계획이라 할 수 있는 「공원녹지 100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도시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자연녹지의 보전에 힘을 기울여 도시림, 도시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훼손 및 무분별한 형질, 용도변경 등의 난개발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산의 도시인구 및 규모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도시녹지의 골격, 축, 녹지거점을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녹지인프라 확보계획을 입안하고, 녹지의 균형배분의 관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도시공원녹지 재편성을 위한 「공원뽁뽁플랜(100*100플랜)」을 제안한다. 이는 부산을 공원으로 뽁뽁(백백, 100·100)하게 만들어보자는 내용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하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100만평 규모의 대공원” 과, 하야리아부대를 포함한 중규모 공원, 작은 공원 등 “생활권공원녹지 100만평”의 확보가 골자이다.

도시하천공간의 도시생태축 활용, 군부대, 공장 등의 이전적지의 녹지공원화, 학교숲 만들기, 대도시의 녹지거점으로서 상징적인 공원조성, 옥상녹화, 짜투리땅의 녹화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 「2000만그루 도심숲운동」 및 「공원녹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

푸른도시 만들기는 시민의 진정한 참여 없이, 시의 예산사업만으로 만들어가기에 용이하지 않다. 많은 부산시민의 가슴속에는 푸르름을 동경하는 녹색 씨가 숨겨져 있다. 그 씨에 물을 주고, 싹을 틔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푸른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2,000만그루의 나무를 도심에 심어 도심전역을 생명의 숲으로 만들기 위한 「2000만그루 도심숲운동」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중에 몇 곳은 1000년 전의 숲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1000년의 숲」복원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를 실천적으로 시행하고 가꾸어가기 위한 대대적인 범시민참여기구를 구성을 제안한다. 공원녹지민관협의체인 「푸른 부산만들기를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만들어 시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푸른 도시만들기에 전력을 투구해 보자.

시민들의 푸르러진 마음은 삭막한 도시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푸른 도시만들기는 시민과 행정이 별개일 수 없다.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시민을 지원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푸른 도시만들기에 협력해 나아갈 때에 푸른 부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푸른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녹화협정, 그린트러스트, 시민참여 공원만들기 등 적극적인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 공원녹지 조직의 확대개편 및 일반회계 대비 2~3%의 녹지예산을 확보하자.

부산을 푸른도시, 생태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의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정비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하천분야, 녹지분야가 건설, 주택, 도시계획, 환경 등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이를 현재의 도시계획국에서 환경국으로 이동하여 종합적으로 지속적인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차적으로는 현재의 녹지공원과 1과체제를 녹지과, 공원과의 2과체제로 확대개편하고, 나아가 연차적으로 하천과 녹지분야를 아우르는 「추진본부」 급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 레벨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서울시가 전담부서인 푸른도시국을 설치한 사례는 참고가 될 것이다.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 최근 작성한 「2020부산녹화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안의 마련, 행정조직의 개편,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푸른 부산만들기를 도시행정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한 과감한 투자가 따라주어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의 0.1%에 불과한 녹지관련예산으로서는 부산의 대명제인 푸른 부산만들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최소 2~3%이상의 공원녹지 예산확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 지속적인 생태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념을 도입하자.

아직까지 부산에는 시역 50%의 산지와 그 주변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다양한 야생화가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태군락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하여 녹지보전계획의 수립과 함께,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의 작성, 전체적인 녹지조사, 녹지의 질에 대한 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전체의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녹지총량관리제」의 도입과 함께 도시전역의 「생태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녹지총량리제란 녹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녹지의 양 뿐만 아니라 녹지의 질과 기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녹지의 관리를 말한다. 즉, 개별녹지의 개발 또는 관리에서 지역 전체의 총괄적인 계획 및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시전체의 녹지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생태자원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천, 녹지, 비오톱 등 중요한 생태공간들을 복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훼손되어가고 있는 낙동강변의 우수지, 수로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방안의 마련, 낙동강둔치의 체계적인 복원이 시급하다.

· 인용문헌

- 김기호, 문국현(2006).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중앙
- 김승환 (2000). 도시공원과 녹지체계. 부산도시론. 부산발전연구원.
- 김승환(2005). 부산시 도시공원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공원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공원휴양학회지 7권 1호. pp. 16-29. 한국공원휴양학회
- 김승환(2006).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활동. 한국조경학회지 33권6호
pp.22-39. 한국조경학회
- 도시녹화기술개발기구(2002). 도시생태네트워크. 시그마프레스
- 문화도시네트워크(2004). 2004 푸른부산가꾸기사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활동 발표 보고서
- 박승범,김승환,남정철,이기철,변문기 (2004). 부산시도시공원 녹지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안. 연구 및 보고 제28권 제1호. pp. 77-92.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 부산경실련(2006). 시민주체의 지속가능한 부산만들기 -우리부산 이렇게 만들자
- 부산광역시(1999). 부산공원녹지마스터플랜 -공원유원지정비 및 개발계획-
- 부산광역시(2003). 2020부산녹화마스터플랜
- 부산광역시(2007). 녹지 산림 공원 업무계획
- 石川幹子 (2004). 都市と綠地. 岩波書店

푸른 도시 만들기 전주 사례

신진철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가능발전 부산포럼

당신과 함께 더욱 푸른전주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추진 사례 발표

2007. 10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보시는 순서

- 1 그동안 추진경과
-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3 구성 및 운영방향
- 4 주요 사업 내용
- 5 향후 구상들

2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1 푸른전주가꾸기 운동 제기배경

1972년 도시새마을운동

전주시의 금년도 5대
 역점사업중 하나가
 푸른전주만들기 사업이다.
 10만인 기념식수사업을
 5개년에 걸쳐... (중략)
 전국 처음으로
 나무은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출생, 입학, 졸업에
 1인 1구좌에 1천원씩을
 기탁하면, ... (중략)
 시에서 영구히 책임지고
 가꾸는 방법이다.
 시는 이 사업을 새마을조림
 통일동산가꾸기 등과 연계
 (생략)



3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1 푸른전주가꾸기 운동 제기배경

경과와 평가

- 60-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나무심기사업으로 출발
- 현재까지, 나무심기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옴
 - 민선 2, 3기 6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 민선 4기,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추진 계획
 - 그린터널, 쌈지공원, 벽면녹화, 천년의 숲, 학교숲 조성 등

- 성과 : 실제로 과거에 비해 도심 주변과 공원, 가로수 등 증가
 - 녹지율, 가로수양, 공원 등
- 한계 : 행정주도 사업의 한계 (지속성, 자발성의 문제)
 - 1회성 식재 행사, 사후 유지관리 등의 한계
 - 민간영역에서의 참여 필요(기업, 시민 등)

4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1 그동안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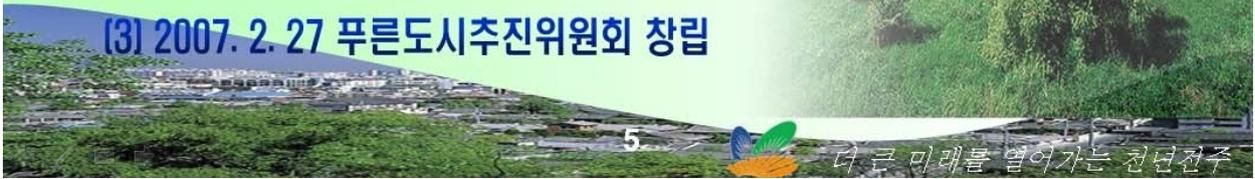
(1)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일시 : '06. 11. 13
- 구성인원 : 10명(민간부문 5명, 공공부문 5명)
 - 민간부문 : 전주의제21,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 전문가, 기업인 등
 - 공공부문 :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주택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장 등

(2) 주요 운영내용

- 운영기간 : '06. 11월 ~ '07. 2월
- 운영실적 : 제 8차 회의 개최 (내부워크샵 등)
-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로드맵 작성 (민선 2,3기 사업평가, 조직구성, 운영 등)
 - 선진지 벤치마킹 : 서울그린트러스트, 경기녹지재단 등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주요 사업계획(안) 마련 및 토론

(3) 2007. 2. 27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창립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는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창립대회 2007. 2. 27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는 천년전주

2 추진방향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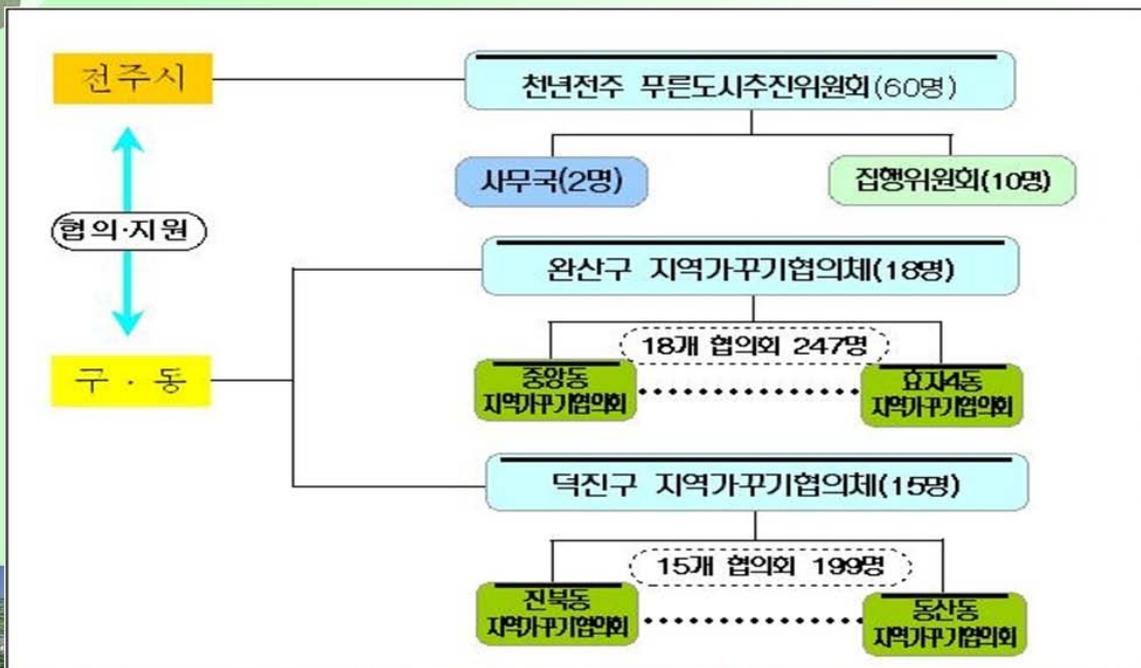
(1) 추진방향

- 자발성과 지속성이 사업의 관건
 - 공공주도의 일회성 시민식수 운동의 (사후관리 등) 한계 극복
- 자발적인 민간주도 사업 적극지원
 - 민간사업 발굴 및 관련 사업 적극 지원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지원
 - 전주시 녹지정책에 참여와 자문, 제도개선 병행 등
 - 기술 지원 및 자문

(2) 중점목표

-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가꾸는 푸른 도시 조성
 - 계획부터 관리까지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와 주도**
- 민·관 공동 협력사업 및 파트너십 우수모델 창출, 발전, 확산
 - 시민아이디어 공모, 지원사업을 통한 시범사례 창조.
- 도시 숲 리더,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활동 도시 숲 전문인력 양성
 - 관련 NGO, 전문가들의 참여와 역할

(3) 조직 및 행정지원체계



3

구성 및 운영방향 총 36개 위원회(협의회) 508명

①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 **구성방향**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생태복원도시분과 확대개편
 - 민간사업 발굴, 재원확보 등 자체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
- **대 표** : 민관공동의장 (전주의제21상임의장, 시장, 시의회의장, 전북은행장)
- **(민간사무국 + 환경위생과**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녹지공원과, 주택행정과 협조)
- **인 원** : 60명(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관계 공무원 등)
- **회 의** : 분기 1회 정도
- **주요역할 및 기능**
 - 정책자문 및 제도 개선 (녹지조례 등)
 - 시민녹화 장려 및 지원사업
 - 녹색 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 녹색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사업
 - 민간운동의 지속적 발전(재단 설립추진) 및 국가지원사업 공동응모

9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① - 1 집행위원회

- **운영주체**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민간)사무국
- **인 원** : 10명 정도
 - 관련 NGO, 기업인,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행정으로 구성
- **임 원** : 집행위원장(노스케스코그)
- **회 의** : 월 1회 이상
- **주요역할 및 기능**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위임된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와 집행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운영 관련 제반사업 집행 및 지원 등

① - 2 민간사무국

- **인 원** : 2명 정도(사무국장 1, 상근간사 1명)
 - 사무국장은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사무국장이 겸임
- **사 무 실**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사무국(시청 8층)
 - * 현재는 별도 사무실 마련
- **주요역할**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와 집행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지원 등

10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② 구청 지역가꾸기협의회 (2개 구청 33명)

- 구성방향 : 동별 지역가꾸기협의회 대표자로 협의회 구성 (완산 18명, 덕진 15명)
- 운영주체 : 구청장(행정지원과)
- 인 원 : 15~18명 정도(동 지역가꾸기협의회 대표) / 분기 1회 회의
- 임 원 : 공동의원장 2명(구청장과 민간위원), 간사 1명
- 주요역할
 - 동별 지역가꾸기 및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지원, 활성화
 - 구청단위 푸른도시가꾸기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 등

③ 동 지역가꾸기협의회 (33개동 458명)

- 구성방향 : 동별 지역가꾸기협의회 + 푸른도시 가꾸기 시민운동 통합 운영
- 운영주체 : 동장(시민생활지원담당)
- 인 원 : 10~15명 / 월 1회 회의
 - 지역주민, 전문가, 상공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애정과 관심이 있는 인사
- 임 원 : 협의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
- 주요역할
 - 동단위, 마을단위 푸른도시가꾸기, 지역가꾸기 자체사업 추진
 - 기념식수, 나무사랑 운동 등 자발적인 운동 전개 등
 - 추진위원회 차원 공모사업 지원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4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7~2010년(4년간)
- 사업내용 : 총 26개 사업
 - 민간부문 : 15개사업(5개부문)
 - 공공부문 : 11개사업(역점사업 6개, 일반사업 5개)
- 총사업비 : 170억원(민간부문 10억원, 공공부문 160억원)
 - ※ 2007년 60.5억원 투자(민간부문 2.5억원, 공공부문 58억원)

(2) '07년 사업현황(예산사업 중심)

(단위 : 백만원)

민 간 사 업(9개사업 250백만원)		공 공 사 업(7개사업 5.800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비
① 시민헌수, 시민헌금 모금사업	250	① 그린터널 조성(5km)	1,050
② 푸른도시가꾸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20	② 종합가족휴양공원 조성(1개소)	1,000
③ 구·동단위 푸른도시사업 공모 지원	100	③ 도시·학교숲 조성(10개소)	1,250
④ 천년전주 '시민숲' 조성	20	④ 작은문화복지공간 조성(10개소)	1,250
⑤ 숲체험학교, 도시숲지킴이 인력양성	20	⑤ 도시벽면 녹화사업(0.5km)	150
⑥ 천년전주 노거수지킴이 운동 추진	50	⑥ 아름다운 녹화거리 조성(2개소)	500
⑦ 시민참여 홍보 캠페인 전개	5	⑦ 담장없애기 사업(6개소)	600
⑧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정기 심포지엄	5		
⑨ 홍보 간행물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20		

[3]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주요사업

주요사업 : 5개부문 15개사업

- 정책자문 및 제도개선 사업
- 시민녹화 장려 및 지원사업
- 녹색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 녹색 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
- 기타 - 국가 공모사업 추진 및 재단법인 설립 추진 등

[가] 정책자문 및 제도개선

- 전주시 녹지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자문
 - 푸른도시가꾸기 공공사업 집행, 녹지, 공원기본계획 수립 등
- 공공녹지 확보를 위한 제도(조례 등) 개선사업
 - 전주시 녹지조례 제정시 의견제시 등

13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3]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주요사업

[나] 시민녹화 장려 지원사업

① 시민식수, 시민헌금 모금사업

- 추진시기 : '07. 7월부터(연중)
- 대 상 : 기관단체, 기업, 일반시민 등
- 모금목표 : 10억원(2007-2010) 1차년도 3억 모금계획
현재까지 모금액 : 약 1억 5천만원
- 추진방법 : 계좌모금 및 나무은행 등 (사단법인 푸른전주운동본부 주체)
- 주요내용 : 시민, 기업체, 기관단체 등 헌수, 헌금모금 운동 집중 전개 등

② 푸른도시가꾸기 시민아이디어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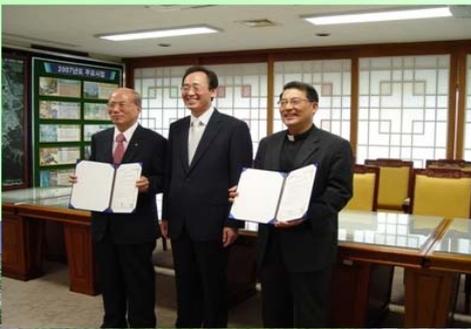
- 추진시기 : '07. 7월~10월(4개월간)
- 추진방법 : (사)푸른전주운동본부, 전북일보, 전북은행, 노스케스코그
- 결 과 : 총 159점이 접수, 본선 9점과 입선 50점, 특별상 3점 시상
- 사 업 비 : 20백만원(상금, 홍보비 등)
- 주요내용 : 우수 아이디어 선정 공공사업 및 추진위원회 자체사업 반영 등

※ 채택 반영된 시민 아이디어 실명제 도입으로 시민참여 동기유발, 자부심 고취

14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시민아이디어공모전/모금사업



15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는 천년전주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③ 구 동단위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공모 지원

- 추진시기 : '07. 10월부터(매년 실시)
- 대 상 : 구, 동 지역가꾸기협의회, 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
- 사 업 량 : 연 4개소씩(개소당 20백만원 정도)
 - 마을숲(쌈지공원), 벽면녹화, 옥상녹화, 기타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 추진방법 : MBC "러브하우스", "기적의 도서관" 사업 추진방식
- 사 업 비 : 연 100백만원(공모사업 지원금, 홍보 운영비 등)
- 주요내용 : 시민주도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적극적인 시범사례 조직화를 통한 민간운동 활성화 방향 제시**

④ 천년전주 "시민 숲" 조성(중장기사업)

- 추진시기 : '07년부터 ~ 지속적
- 대상지역 :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 추진방법 : 1차년도 사전현황 조사 (대상지 물색)
- 사 업 비 : 20백만원(공공사업과 연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 '07년도는 사전 대상지 조사 등 사전 준비활동]
 - 시민, 기관단체, 기업들이 직접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시민의 숲으로 조성
 - 시민들의 자연과 이야기가 있고, 휴식처가 되는 시민 스스로가 가꾸어 가는 숲 조성

16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는 천년전주

[다] 녹색인력 양성사업

⑤ 숲 체험학교 운영(가칭 : 우리동네 자연학교)

- 추진시기 : '08. 3월부터(수시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학생 등
- 장 소 : 전주수목원, 경기전, 산림환경연구소 등 시내에 소재한 도시 숲
- 추진방법 : 시민행동21, 생명의숲이 주관, 시민교육활동
- 사 업 비 : 10백만원(강사수당 등)
- 주요내용 : 마을단위 녹지, 녹색문화자산 중요성 이해와 시민운동 필요성 등 교육

⑥ '도시숲 지킴이' 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 추진시기 : '08. 7~8월
 - 매년 1회 정기과정 운영,
- 대 상 : 연 50~100명 정도(관련 시민단체, 공무원, 시민, 학생 등)
- 사 업 비 : 10백만원(강사수당 등)
- 주요내용 : 도시숲에 대한 이해, 중요성, 역사·문화적 배경 등
 - 전주시 녹색문화자산 해설사 및 시민교육, 홍보활동으로 연계
 - 이후, 심화교육 등을 통해 '도시숲 코디네이터'로 육성 등

[라] 녹색마인드 확산 및 홍보 캠페인사업

⑦ 천년전주 노거수 지킴이 시민운동 전개(1+26 프로젝트)

- 추진시기 : '07년부터(연중)
- 대 상 : 천연기념물 1그루, 노거수 26그루
- 추진방법 : 해당지역 주민, 가족단위, 기관단체별 노거수별 결연
- 사 업 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보약주기, 지푸라기 옷입히기 등 관리방법 정기적 모니터링
 - 노거수 이야기(역사, 문화, 생태가치 등) 책자 및 지도제작 보급 등

⑧ 범시민운동 참여 홍보 캠페인 전개

- 추진시기 : '07년부터(연중)
- 대 상 : 전 시민, 기관단체, 기업 등
- 추진방법 : 방송사, 신문사 등 지역언론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언론매체 : 기획보도, 홍보 캠페인 방송 등
 - 홍보행사 : 아파트, 도심공원, 주요 등산지 등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 전개
- 사 업 비 : 5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숲가꾸기(검정봉다리 프로젝트), 옥상녹화, 한평공원 등

작은 실험들 - 검정봉다리 PROJECT



검정봉다리 Project

5월 2일(수) ~ 3일(목) 12:30분 ~ 1:30분

보령교육
부흥도시농업지원센터



작은 실험들 - 시청자 정원가꾸기

씩!씩!씩!
씩이 났어요




⑨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정기 심포지엄 개최

- 추진시기 : '07년 하반기(연 1회 이상)
- 참석대상 : 국내 외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 사업비 : 연 5백만원(발제 및 토론수당 등)
- 주요내용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주요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 등

⑩ 홍보물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 추진시기 : '07. 6월부터(연중)
- 주 체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사무국
- 사업비 : 20백만원
- 주요내용 : 푸른도시가꾸기사업 홍보 간행물, 홈페이지 운영 등
 - 시민식수, 헌수, 헌금 모금운동 참여 안내
 -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 우수사례 소개, 추진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보제공
 - 나무식재 및 사후관리 요령, 선진사례 소개 등 푸른도시가꾸기 정보소식지 발간 등

[마] 기타 사업

⑪ 천년전주 푸른도시 사단법인 설립

- 추진시기 : '07. 7 창립
- 모금사업 추진 등이 기부금품관련법 등 저촉, 별도 사단법인 조기 설립 추진
- 초기, 모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추진 후, 현재는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2007년말 총회에서 추진위원회와 관계 재정립 계획

⑫ 시민단체, 기관 등 추진사업 지원 및 공동추진(매칭펀드 구성)

- 추진시기 : '07년부터(연중)
- 대 상 : 관련 시민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기관 등
- 추진방법 : 관련 시민단체,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원 및 공동추진
- 주요내용 : 학교숲 가꾸기, 담장없애기 등 해당 기관과 매칭펀드 구성 공동추진 등
 - 예) 전북생명의숲의 경우
 - 녹지기금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에 연 2개소 30백만원 투입
 - 학교숲 조성사업을 '전북생명의숲'과 '해당 학교'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공동 추진

⑬ 정부기관 등 국가지원 녹화사업 공모 공동대응

- 추진시기 : '07년부터(연중)
- 대 상 :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 공모사업
- 추진방법 : 관련 정보수집 및 공유체계 구축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 사무국, 전주시 녹지공원과, 관련 시민단체 등
- 주요내용 : 각종 도시녹화 공모사업 공동 대응전략 마련 및 응모
 - 예) '07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산림청) : 3개분야 125억원
 - 도시림 조성분야 96억원, 산책로 정비분야 16억원, 산림문화 홍보분야 13억원 등

23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5 향후 구상들

- 시민이 가꾸는 옥상정원/텃밭 조성사업 추진
 - 서울시의 '10만 녹색지붕 조성사업'과는 다른 접근
- 전주천 갯버들 식재사업
 - 기 조성된 전주천의 갯버들을 삼천에 깎꽂이 / 물의날 행사등
- 내가 만든 녹색공간 컨테스트
 - 1차년도 공공기관 옥상에 정원조성
- 노거수 결연사업
- 한평공원 조성사업
 - 동네 공한지, 가로수에게 한평 숨길 땅을 주자, 버스 승강장 등
 - 벽면녹화 등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시청사 14층

TEL : 051)888-3587~8, FAX : 051)851-9225

Home-Page : <http://www.ecopa21.or.kr> E-mail : ecopa21@hanmail.net
